

오만과 편견이 낳은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

《폴라리스 랩소디(전8권)》와 《투신전(전5권)》

조성민 |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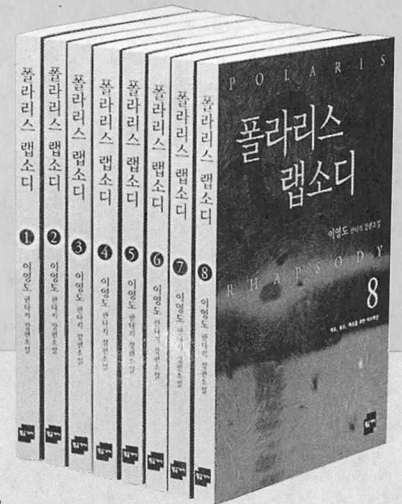
판타지 문학이 보여준 난삽한 언어와 빈약한 플롯, 형편없는 문장은 우리가 판타지 문학에 걸었던 기대를 여지없이 배반했다. 그러나 판타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목을 요구하고 있다. n세대와 대중문학의 주요한 흐름으로 정착됐으며, 아직도 우리의 문학적 지평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판타지 문학은 본격문학에 반성의 기회를 던지는 한편, 우리 시대의 문화와 문학을 객관화하는 바로미터로 기능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판타지를 읽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작품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판타지는 고급독자들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적불명의 난삽한 언어들과 형편없는 문장들, 그리고 빈약한 플롯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이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뭔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 독자이거나 판타지에 열광하는 10~20대 사이의 마니아일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우리의 판타지는 이와 같은 이분법이 무리 없이 통용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이상한 장르가 돼 버렸다.

환상에서 '황당'으로

지금부터 몇해 전에 판타지가 홀연히 등장해 질풍노도 같이 사이버공간과 서점가를 휩쓸고 있었을 때 평론가들은 한편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각별히 주목했다. 한국문학의 이념과 외연을 지탱해왔던 리얼리즘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판타지 내지 환상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문학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호흡을 고르고 본격적인 조망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 신생 장르는 환상이 아닌 황당한 장르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판타지는 희망이 없는 불장다본 문학은 아닌가. 우리 판타지의 동향과 의의,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영도의 《폴라리스 랩소디(전8권)》(황금가지)와 최근 장편으로 완간된 권정민의 《투신전(전5권)》(자음과모음)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기실 판타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적이다. 비록 우리가 '판타지가 독립된 장르인가', 아니면 '문학의 내재적 속성인가' 하는 고급한 논쟁은 고사하고 이것을 판타지, 환타지, 팬타지로 각기 다르게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



이영도 지음
황금가지/A5신/262면 내외/각 7500원

도 이와 상관없이 판타지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문학을 객관화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판타지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다. 첫째 환상(fantasy)은 모방(mimesis)과 함께 문학의 핵심적 자질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둘째 작품의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그것이 n세대 나아가 대중문학의 주요한 흐름으로 정착됐다는 점에서, 셋째 과학적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근대사회의 비판적 타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넷째 우리의 문학적 지평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영토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는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고 문제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주 절망적인 우리 판타지들의 작품 수준에 비춰 보면 이제까지 과분할 만큼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그것은 비평가들의 성급한 사회학적 충동의 소산이었거나 문학의 타락과 수준저하를 우려하고 질타하는 근엄한 훈시비평(訓示批評)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판타지가 왜 읽히는가, n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열광하는 것인가, 이를 읽어내는 우리의 관점은 지나치게 일방적이지는 않은가 하는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성찰과 탐색이 없는 한, 한편에서는 열광하고 한편에서는 혀를 치는 기현상은 끝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낮익게 하기'와 중세적 상상력

주지하듯 판타지는 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가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즐거움과 문학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장르다. 이때 판타지가 동원하는 방법이 바로 '낮익게 하기'(familiarization)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낮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타지는 낯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하는 경이로



권정민 지음
자음과모음/A5신/286면 내외/각 7500원

운 이야기로 자신을 위장(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현상이고 착시일 따름이다. 본래 '낯설게 하기'란 우리의 현실경험이나 일상과 과감하게 결별해 그 익숙하고 자동화된 것들 속에 내재돼 있는 새로움에 주목하는 치열한 예술정신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낯설게 하기'는 이렇듯 경험적 현실과 일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방해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심미적 긴장을 활용

하는 기법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판타지는 정확하게 '낯설게 하기'의 정반대 편에 위치해 있다. 《플라리스 랩소디》나 《투신전》과 같은 판타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 판타지는 드래곤·대사(大蛇)·디바인 마크·복수의 검 등과 같이 비록 소재는 낯설지만 n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해져 버린 캐릭터와 소재들을 끌어들이는 다음, 이를 그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장치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낯설고 생소한 소재와 장치들로 인해 호시작품의 리얼리티와 신빙성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따위는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낯익게 하기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이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의구심을 품는 순간, 독자들은 곧바로 텍스트 속에 빠져들게 되고 마침내 황당한 서사 속으로 완벽하게 통합돼 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진정한 문학들은 자신이 본래 허구라는 것이 들끓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때문에 진정한 문학들은 통상 자신의 픽진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미적 장치와 문학관습(conven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판타지는 여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판타지를 쓰거나 읽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모든 현실논리와 책임을 방기해 버리려는 욕망의 소산이고, 따라서 쓰거나 읽는 이 모두 판타지라는 그 거룩한 이름 하나만으로 픽진성의 문제에서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어떤 작품에서건 책장을 펼치는 순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국내 판타지 작가로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작품 《드래곤 라자(전12권)》(황금가지)를 외국에 수출하기도 한 이영도의 최근작 《플라리스 랩소디》를 보자. 이 판타지는 가공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해적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제국의 공적 1호'인 키드레이번과 그가 이끄는 해적단은 카밀카르의 공주 올리아나를 납치하고, 전설의 대사를 무찌르기도 하면서 항구도시 다림에 플라리

스라는 그들만의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올리어나 공주라든지 파킨슨 신부나 범함 퓨아리스 4세 등의 모습에서 또는 이들의 모험이 펼쳐지는 세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성로마제국 시대 또는 중상주의 시대의 유럽을 떠올리게 된다. 게다가 디바인 마크를 받고 흑태자를 제거하는 미들랜드의 젊은 고수 카이탄의 이야기를 박진감있게 그리고 있는 《투신전》 또한 얼핏 보기에도 목시록적인 중세의 민간전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어째서 서양의 중세를 모델로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딱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n세대 작가들에게 서구의 대중문화는 이미 그들의 일상적 삶 그 자체가 됐을 만큼 매우 친숙한 것이다. 게다가 현실적 근거와 문맥을 잃고 사라져 버린, 또는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중세 유럽의 이야기를 차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판타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최근의 우리 판타지는 판타지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국적불명의 황당한 이야기가 돼가고 있음은, 곧 초국적 자본에 의해 추동되는 세계화(서구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온몸으로 절감케 한다.

재주술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

합리성의 확장 and 탈주술화가 근대성의 지표라고 공언했던 고전 사회학의 명제는 머지않아 폐기돼야 할지도 모른다. 근대(자본)는 우리와 이 세계를 탈주술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재주술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n세대를 겨냥하고 있는 판타지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문학상품은 일종의 자본의 마법, 곧 근대의 재주술화 현상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판타지를 유치하다거나 수준 이하라고 폄하하고 방관하는 근엄한 훈시비평들과 배타적인 문학 엘리트주의가 견제하는 한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본이 건 주술에서 도저히 풀려날 길이 없을 것이다. 자본은 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기민하게 파고 들어와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를 자신의 시장으로, 노예로 만들어 버릴 터이므로, 이쯤에서 단 한 마디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자. 우리의 판타지가, 우리 문학의 소중한 미래 세대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토록 근엄하고 잘난 본격문학들은 이제까지 무엇을 했으며, 어디에 있었는가? 어찌면, 이영도의 《플라리스 랩소디》와 권정민의 《투신전》과 같은 판타지는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무관심과 오만함과 편견이 만들어낸 어두운 자화상일지도 모른다.●